

■ 스포츠

LA 다저스, 제2 전성기 도래할까?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제2의 전성기를 예고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LA 다저스는 지난 27일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글로브 라이프 필드서 열린 ‘2020 월드시리즈’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6차전서 3-1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탬파베이를 따돌리고 1988년 이후 32년 만이자 구단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시즌 메이저리그(MLB)는 코로나19로 인해 팀당 60경기라는 단축 시즌으로 치러졌지만 다저스는 우승 후보 1순위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대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고비도 있었다. 와일드 시리즈와 디비전시리즈를 전승으로 통과했던 다저스는 애틀랜타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서 먼저 3승을 내주는 등 탈락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탄탄한 투타 전력의 힘이 경기를 치를수록 완성도를 이뤘고 마지막 7차전서 승부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가을만 되면 약세를 보였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도 오명을 떨치는데 성공했다. 커쇼는 5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무너졌던 애틀랜타와의 NLCS 경기를 제외하면 이름값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다.

특히 우승이 걸린 이번 월드시리즈에서는 총 2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며 당당히 챔피언 반지를 손가락에 걸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문 구단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다. 최정상 전력을 보유한 다저스는 이번 우승으로 지역 라이벌 샌프란시스코(8회)와 내셔널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세인트루이스(11회)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월드시리즈 최다 우승팀은 뉴욕 양키스로 총 27회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던 다저스는 올 시즌까지 8년 연속 지구 1위를 놓치지 않았다. 7전 8기 끝에 찾아온 월드시리즈 우승이라 더욱 감격적일 수밖에 없다. 다저스가 1950~60년대 영광 이후 다시 전성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되자 다저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트위터(king5seattle) 캡처 편집

■ 부동산 칼럼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교육의 도시 ‘풀러턴’

골든스테이트(The Golden State)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그 안에서도 날씨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남단의 평화스러운 삶이 있는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중에서도 생활권이 편리한 풀러턴(Fullerton)에서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더욱 이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이기도하다.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도 후손들의 교육에 힘쓰는 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하려는 도시, 풀러턴의 모토(Motto)는 “The Education Community”이다. 풀러턴시를 상징하는 꽃은 카네이션이며, 나무는 자카란다(Jacaranda)이다. 매년 4~6월을 남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자타란다의 꽃말은 ‘화사한 행복’이라고 한다.

풀러턴은 1887년에 세워졌으며 1904년 2월15일에 통합되었다. 2010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풀러턴 거주 인구는 135,161명 이상이다. 인구센서스는 10년마다 실시되니, 올해 기준 거주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통면에서도 LA Downtown 과 LAX국제공항이 20 mile 정도 거리여서, 각각 40 mile 정도 거리에 있는 어바인시에 비해서 LA와 LAX에 보다 수월하게 왕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 학군이 좋고 앞서 밝힌 것처럼 LA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집값이 잘 떨어지지않는다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이라면, 거주하던 주택을 되팔 때 Resale value 가 좋다는 것이며, 단점이라면, 주위 도시(라미라다,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애나하임)에 비해 집값이 비싸서 젊은 첫 주택 구매자들은 먼저 주위에 집을 구입한 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입학 때쯤이면 풀러턴으로 이사하기도 한다.



▲ 풀러턴 다운타운 모습. 사진=shutterstock

풀러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80년대 철도 부지로 이미 애나하임에 430 에이커의 땅을 구입했던 Amerige형제가 Santa Fe Railway의 자회사인 Pacific land and improvement company의 George H. Fullerton(1843~1929)과 협상하여 풀러턴시의 최초 타운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개정(1887년 7월5일)하였는데, 그 위치가 현재의 풀러턴 다운타운(Harbor Blvd + Commonwealth Ave)이다.

이때 도시의 이름을 그의 성을 따서 ‘Fullerton’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1904년 법인도시로 승격하면서 애나하임 북쪽 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비옥한 땅과 포근한 날씨로 많은 오렌지 과수원이 생기고, 호두와 아보카도 재배도 성업하게 되면서 서부 철도 도시였던 풀러턴은 점차 농업중심지가 되었고 점점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1950~1960년대에는 훌륭한 학교들이 건축되며 오늘날의 풀러턴시로 발전해왔다. 풀러턴시가 설립된 지 116년이 된 오늘, 풀러턴에 살고있는 한인의 한 명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ANGIE KIM
REDPOINT REALTY
 Honored Vice President
 (714) 707-036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Certified Short Sale and Foreclosures Specialist (#190418)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